

도로사업에서의 국민참여(PI)시행체계 정립방안



황연하

1. 서론

최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의 사패산터널에서는 국립공원 훼손, 생태환경 파손과 사찰수행환경 훼손등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발로 인해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으며 서울시의 강남순환도로건설은 2000년 기본설계완료후 환경문제와 지역주민간의 이해대립으로 7년만인 2007년 5월 전체노선의 일부인 남부구간에서 착공하게 되었다. 또한 경기 제2도청에서 발주한 남양주시내 어느 우회도로개설계획은 기존도로변 상가주민들의 반대로 2년간의 갈등끝에 결국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어 설계업무를 타절하여 종료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부분의 도로사업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당초 사업일정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기한 도로사업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노선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과 수용불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노선 선정과정에 대한 불신과 과정에서서의 갈등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들간 조정의 미흡으로부터 연유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후 갈등은 당해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반목과 분열까지도 초래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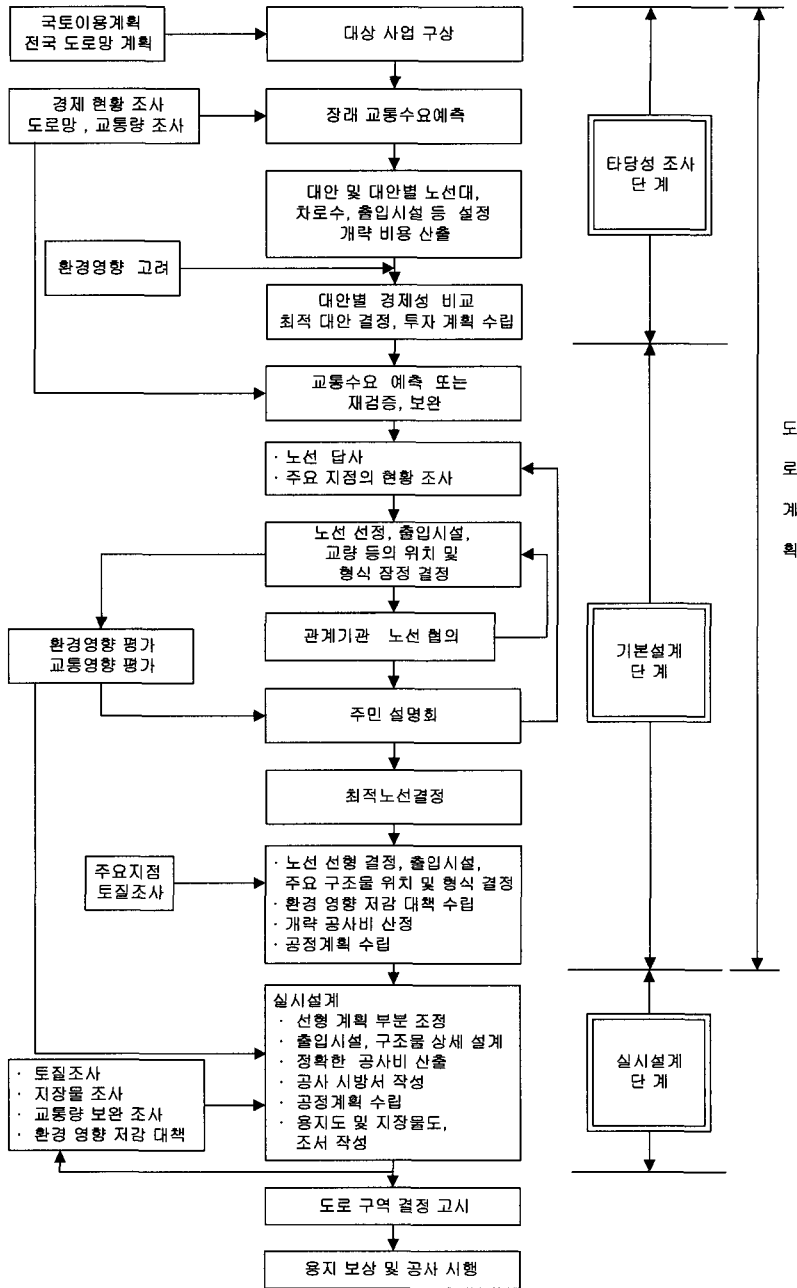
도로사업후의 갈등요인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부에서는 선진외국에서처럼 국민참여(PI, Public Involvement)를 도입하여 현행 도로사업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PI는 정부의 정책 또는 사업시행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주민과 정부간의 양방향 의사소통과정으로 정의된다. 이전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던 행태에서 PI적용시는 도로계획을 초기부터 공개하여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주요결정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와 가치적 대립을 포함하여 참여자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보다 바람직한 대체안 검토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PI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크고 작은 수많은 도로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사회나 지역환경문제로 인한 대립이나 갈등이 더 이상 예외적이거나 우발적인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 부합되도록 기존 도로사업 절차에 대한 재검토와 현실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도로사업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기존의 도로사업에 국민참여를 반영한 도로사업시행체계를 구상하여 나름대로 정립함으로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순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도로사업 시행절차와 국민참여현황

일반적인 도로사업의 과정은 크게 계획단계, 설계단계 그리고 시공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도로계획단계는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들과정은 전후 상호간에 연관성이 깊어 각각 독립된 별도과정으로 수행되지는 않는다. 즉 타당성조사에서 선정된 최적노선대는 그 후 기본설계에서 선형계획의 기준적 전제가 되는 것과 같다.

도로사업은 선형사업이므로 도로노선의 선정은 지역주민이나 지역환경에 직접적 이해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이는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노선형태나 출입시설, 교량, 터널, 절성토등 주요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대부분 도로계획단계에서 결정된다.



〈그림 1〉 도로 설계의 흐름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하면 타당성조사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검토, 기본설계시에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로사업에 대한 정보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단계에서 개략적인 노선계획등이 설정된 후에 실시설계단계에 들어서서 비로소 주민 설명회의 형식으로 일반에게 공고되며 이 또한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에서의 주민설명회도 설계시의 주민설명회와 합동으로 시행하므로써 횡수가 제한되고 있다.

이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여 사업자는 타당성단계나 전단계에서의 기본틀을 변경하기 쉽지 않은 관계로 이로 인한 대립 및 갈등이 확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기존의 사업시행체계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설명회 또한 도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참가가 미흡한 실정이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나 협의등의 실질적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Ⅲ. 도로사업시행절차와 국민참여 적용

1. 도로사업의 단계구분과 국민참여

도로사업의 단계는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법적 구분, 발주단계, 단계별 성과 내용의 차이 등에 따라 구분하면 도로망구상, 조사, 설계, 공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도로망 구상단계에서는 공간계획과의 조화와 효율적인 도로망체계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축척 1/5만 이상의 도면에 표시되어 사적이해관계와의 관련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지역주민들과 직접 관련한 PI 시행에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사 단계에서는 노선필요성 확인, 노선대 결정을 목표로 하고 노선대 통과여부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지역주민과 관련된 PI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결과 도로구조(고가, 지하차도, 터널, 절성토, 평면 등) 및 선형, 출입시설위치 및 형식(평면, 입체등), 구조물등 도로골격이 결정되는 단계로서 지역내 주민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PI가 요

〈표 1〉 도로사업의 단계구분

구분	내용
도로망구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또는 지역적인 도로망계획의 필요성/적합성 검토 ○상위 계획, 지역개발계획, 광역교통망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등
조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노선의 타당성/경제성 검토 ○사업실시 여부 및 사업 가능성 확정단계 ○예비타당성, 타당성, 기본계획
설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노선의 선형, 출입시설, 구조물 형식결정 및 설계 ○사업실시 전제하에 도로구조/도로구역을 정하는 상세도면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노선에 의한 보상과 공사시행 ○공사전 보상집행, 공사중 교통처리 및 환경영향대책

구된다. 공사단계에서는 용지보상이나 공사중 교통 및 환경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이해당사자와의 협상이 요구되며 또한 일부 공익과의 조화를 위한 PI가 필요할 수도 있다.

2. 도로사업과정과 국민참여 적용

도로사업의 절차란 어느 한 단계는 다음단계의 기초가 되는 각 단계 상호 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PI의 효과가 최대화되고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도로형태가 결정되는 최초의 노선선정단계에서부터 PI가 시행되어야 한다.

〈표 2〉 도로사업진행과정과 PI 적용

구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타당성/기본)	실시설계 (기본/실시)	공사
타당성조사부터 시행	예비PI	본PI	보완PI	보완PI
기본설계 (타당성/기본) 부터 시행	-	본PI	보완PI	보완PI
실시설계 (기본/실시) 부터 시행	-	-	본PI	보완PI

실제 도로사업의 발주단계를 살펴보면 대상도로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타당성부터 발주하는 사업도 있지만 기본설계나 매우 소규모의 경우는 실시설계로 발주되기도 하며 때로는 두 개 단계를 묶어 동시에 발주하기도 한다.

타당성조사부터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이거나 중요노선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노선의 필요성 검증을 중심으로 한 예비PI를 하며 기본설계에서 최적선형을 결정하는 본 PI를 시행하고 그 후는 사안에 따라 보완 PI를 시행한다. 기본설계(타당성/기본)부터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전반부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후반부는 노선의 선형, 출입시설 구조물형식과 같은 노선의 골격결정을 유도하는 본 PI를 시행하고 그후는 사안에 따라 보완 PI를 시행한다. 또한 실시설계(기본/실시)부터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공사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 최적노선을 포함한 노선의 골격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본 PI를 시행하고 그후는 사안에 따라 보완 PI를 시행한다.

하지만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PI이외에는 가능한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보완PI는 국지적인 사업시행자와 이해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조정과 협상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사적인 과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특별히 공공에 큰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예비PI 또한 지역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대규모사업이거나 특별히 공익적 관점에서 사업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3. 국민참여 적용 대상도로의 선정

기능이 저급한 도로건설의 경우는 보통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선형이 굽어지고 잦은 비탈이 생기더라도 자연환경의 훼손이 적다. 하지만 고속도로나 고기능의 간선도로는 자연지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장대교량이나 장대터널 또는 대규모 절성토를 발생시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마을에 인접하거나 집단민원을 초래하는 지역을 통과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국민참여(PI)를 적용하는 대상은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수 있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가 요구되는 고규격 간선도로사업, 환

경상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집단취락지역 통과로 갈등의 소지가 예견되는 사업, 기타 대상사업 특성상 PI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한 사업 그리고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구분이 분명치 않을 경우 갈등영향분석 결과 국민참여기법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한다.

Ⅳ. 국민참여 시행체계 정립방안

1. 국민참여 시행체계

1) 참여자의 구성과 역할

도로사업의 국민참여는 각 참여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단계마다 주요 결정사항에 이르는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로사업에의 참여자는 크게 공급자, 수요자, 중립자로 대별하며 공급자는 사업시행자와 그와 함께 기본안과 PI시행계획을 작성할 설계자와 PI기획자로 구성되며 대상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이용자가 포함된 수요자,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의회를 주관하는 진행자와 PI진행을 공정하게 감시할 감시자 그리고 특정 전문분야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자로 구성한다.

〈표 3〉 국민참여 참여자의 구성과 역할

구성		역할
공급자	사업 시행자	도로사업 및 PI발주, PI총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구성
	기술자	도로, 환경관련조사 및 분석, 설계안 및 각종 평가서작성
	PI기획자	PI시행계획수립 및 진행, 갈등영향분석, 주민협의회구성
중립자	진행자	협의회에서 선출, 설명회, 협의회주관 및 사회
	자문자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이나 정책적 검토 자문
	진행감시자	PI일정과 공정성관리, 시행자와 지역주민의 합의추천자
수요자	핵심이해관계자	예상 노선대지역 해당 주민
	주변이해관계자	예상 노선대주변의 주민, 지역단체 및 기관, 관련지자체
	이용자	예상 노선대를 이용할 사람

2) 국민참여형 도로사업의 내용적 구분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와 관련하여 내용적 과정을 구분하면 각 도로사업단계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는 대체안을 강구하며 각 분야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과정인 계획검토과정, 각각의 검토절차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그러한 참여방법을 계획하거나 주관하며 때로는 과정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주민참여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합의된 안이 도출되거나 권유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각 단계마다 공식적으로 최종안으로 결정하는 계획결정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회는 계획안과 주민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통해 최적의 안을 절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합의안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대표, 시행자, 전문가등 공익과 사익을 객관적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며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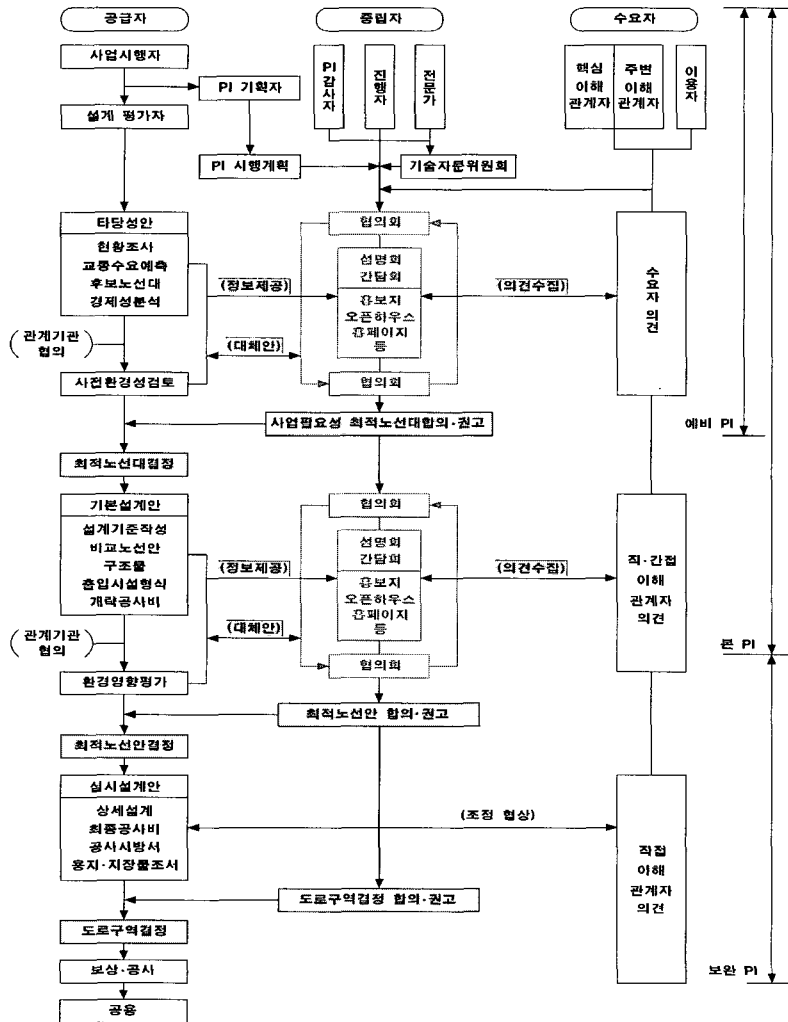
〈표 4〉 계획 및 참여과정과 참여자

구분		공급자			중립자			수요자		
		시행자	기술자	기획자	감시자	진행자	자문자	핵심 이해관계자	주변 이해관계자	이용자
협의회(집중토의 대체안검토) 자문위원회(기술 정책자문)		○				○	○	○	○	○
계획결정과정	최종안 결정주체	◎								
	계획안 지원		◎							
계획검토과정	계획검토주관					◎				
	계획안작성	○	○							
	대체안검토	○	○			○	○	○	○	○
	관계자 및 기관협의	○	○	○						
	정책 및 기술적지원						◎			
주민참여과정	참여진행주관			◎						
	참여계획수립·지원			◎						
	참여감사				◎					

◎ 단독부담 ○ 공동부담

3) 도로사업과정과 국민참여 시행체계

도로사업의 국민참여는 각 단계마다 계획검토와 국민참여 그리고 계획결정과정이 상호연계되면서 시행되는데 첫 번째 시행은 사업시행자가 설계와 PI기획부문을 의뢰하여 계획안과 PI시행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계획안은 이해관계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



〈그림 2〉 도로사업의 PI시행체계

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토록 한다. 두 번째는 PI계획에 의하여 각각의 참여자를 설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PI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공식적 기구(협의회)를 구성하며 또한 협의회 자체에서 사회와 회의진행을 책임질 진행자를 선출토록 한다. 그리고 나서 협의회와의 협의에 의하여 PI감시자와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세 번째는 계획안(타당성안이나 기본설계안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수요자에게 설명회나 간담회 그리고 홍보지, 오픈하우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회에서 필요 시 전문가나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직접적인 의견을 구하여 계획안과의 비교 절충에 의한 합의안을 마련토록 한다. 끝으로는 합의안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 계획안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계획안 검토와 국민참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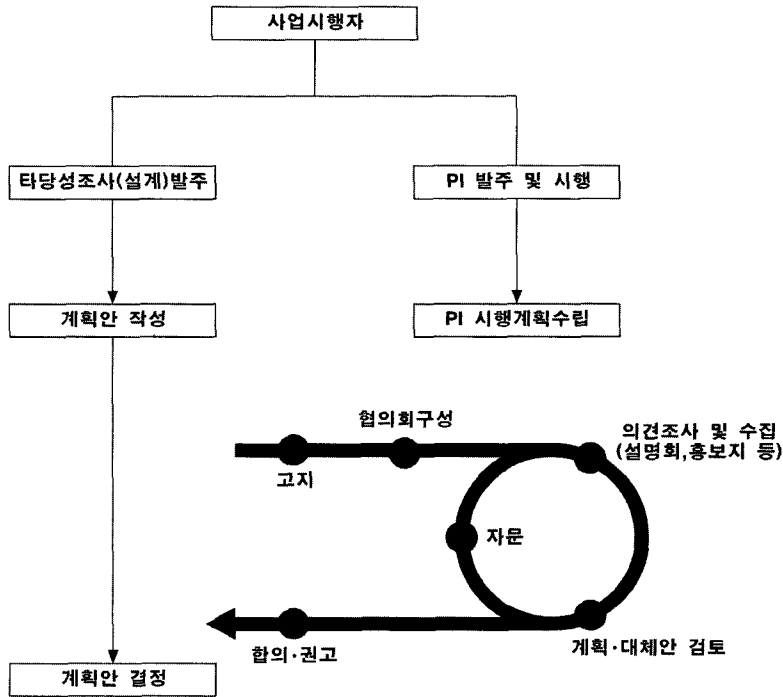
1) 계획안 검토와 국민참여 시행절차

일반적으로 PI활동은 계획안이 주민에게 공개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PI시행 이전에는 사업시행자 내부적으로만 주로 검토되던 것이 PI시행의 경우는 계획안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교환하여 쌍방향 공동 검토하게 됨으로서 계획검토와 주민참여과정이 상호연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계획안을 작성하여 일반에 공표하고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검토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고지 : 사업시행자가 계획안을 주민등 일반에 제시하고 공포함.
- 협의회구성 : 계획안과 주민의견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협의회를 구성함.
- 주민의견조사 및 수집 : 설명회, 간담회 그리고 홍보자료, 오픈하우스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수집함.
- 계획안 및 대체안 검토 : 계획안과 주민등의 의견수렴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체안의 제시와 합의가능성을 검토함.

- 자문 : 주민의견과 대체안 검토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체안을 보다 합의가능한 대안으로 개선한다.
- 합의 및 권고안 도출 : 계획안 및 대체안 검토와 자문을 통해 수립된 합의 및 권고안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함.



〈그림 3〉 도로계획안 결정과 PI시행절차

2) 계획안 검토과정의 단계별 PI활동

계획안 검토과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계획기본안의 작성과 발의를 한 후 계획안 및 이를 개선할 대체안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목표와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대안평가를 실시하며 그리고 나서 평가결과를 통해 최적 합의안을 도출토록 한다.

이러한 검토과정의 각 단계별 PI활동은 <표 5>와 같다. 각 단계마다 해당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정보와 수집할 정보의

내용을 구분하여 파악해야 하며 또한 정보제공과 수집할 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결정하게 된다.

〈표 5〉 세부검토평가과정별 PI활동

검토 과정	PI활동					
	목적	제공할 정보	수집할 정보	주대상자	주요기법	
기본안 준비 및 발의	계획수립 대상 지역이나 대상 범위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 계획안 제시.	국민참여전제로 한 계획수립을 개시한다는 공고. 기본안 검토내용. 참여진행 절차와 일정계획안.	사업배경에 관한 정보 사업에 따른 영향. 이해 관계자의 관심 및 소재. 진행절차에 대한 요망 사항.	지역핵심인 물그룹, 지역 주민, 광역 일반주민.	지역 및 중앙신문, 지역 홍보지, 주민 설명회, 설문조사.	
대 체 안 검 토 및 평 가	목 표 설 정	지역과제의 발굴 및 정책목표,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	지역의 현황, 문제점, 과제 과제해결을 위한 정책목표.	계획에 대한 요망 사항. 계획에 상정되지 않은 과제추가 목표.	공청회, 주민, 설명회, 홈페이지, 설문조사. 오픈, 하우스.	
	평 가 항 목 설 정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설정. 평가의 관점 및 평가기준 파악.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대안의 비교평가 를 위한 항목 및 기준.	대안에 반영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관과 요망 사항. 대안에 관해 누락된 정보 항목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		지자체, 지역대표, 지역주민, 일반국민.
	대 안 평 가	대체안 비교평 가의 관점과 기 법 확인.	대체안의 비교평 가 결과.	대체안 검토 결과에 대 한 의견. 비교평가 방법에 대한 요망사항.		
최적안 합의	최적안 검토결 과 및 합의근거 의 공유.	최적안의 내용 결정경위와 이유.	최적안에 대한 소견. 결정경위에 관한 소견.	지역주민, 일반국민	주민 설명회, 홈페이지 신문	

V. 결론

현행 도로사업의 절차에서도 주민설명회라는 주민참여제의 일부가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에서처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미약하며 다만 의례적인 절차상의 일부로 비취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사업 절차중에서 처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노선의 형태가 결정되는 단계는 타당성단계로서 이때부터 주민참여가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타당성단계가 없이 기본설계부터 시작될 경우는 기본설계에서 노선선정에 관한 주민참여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참여 시행대상 도로는 집단 민원이나 환경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높은 대규모 고규격 간선도로와 같은 사업이나 사업자가 주민참여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참여를 통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요구할 경우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주민참여의 시행체계는 참여자의 구성과 역할을 정립하고 각각이 계획결정과 계획검토 그리고 주민참여과정을 분담하여 시행하게 되며 주민에게 정보제공과 의견수렴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를 협의회를 통해 집중 토의와 함께 합의 및 권고안을 도출토록 하였다. 또한 주민참여활동은 사업시행자의 고지와 주민의견조사 및 수집, 계획안 및 대체안의 검토, 그리고 자문을 거쳐 합의 및 권고안에 이르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향후 실제 주민참여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활동기법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많은 자료의 수집과 연구가 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국민(또는 주민)참여가 시행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상황변화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한 국민참여와 관련된 참여자중에서 PI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 교통, 환경분야의 지식과 국민참여의 진행체계를 숙지할 수 있다면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력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작금의 도로사업의 집행은 각종 민원이나 갈등으로부터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처지이므로 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내 공공사업

관련 부서에서도 PI담당직급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에서의 계획노선에 대한 단기예산편성도 주민들의 반발등에 봉착될 경우 실제 계획대로의 추진이 불확실하므로 설계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진척도를 분석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도로사업의 사업우선순위 선정시에도 교통량이나 경제성등의 항목에 더하여 주민의식조사에 의한 주민참여에 의한 합의가능성을 포함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도로사업에서 주민들의 인식 및 성향파악을 위한 주민 의식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조사가 때로는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주민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립적 국책연구기관에서 책임 시행토록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조사의 신뢰성과 공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권영인, 박정욱, 『SOC 사업추진상의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교통개발연구원, 2004. 12.
2. 권영인 외, ‘이용자 중심의 도로계획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교통개발연구원, 2003. 12.
3.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사패산터널구간 민원백서, 한국도로공사, 2003
4. 황연하 외, ‘SOC사업에서의 갈등발생과 제도적 개선방안’, 2005 토목학회 발표
5. 권영인 외, ‘주민참여형(PI)형 교통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5 대한교통학회 발표
6. 김응철 외, ‘국민참여형 도로계획 수립방향’, 2005 대한교통학회 발표
7. 김태완 외, ‘미국의 PI제도 및 국내도입방안’, 2005 대한교통학회 발표
8. 이승호 외, ‘일본의 도로사업에 따른 PI교육내용’, 2005 대한교통학회 발표
9. 건설교통부, ‘도로설계편람(I)’, 2000
10. 屋井鐵雄 외, 『市民參畫の道づくり』, ぎょうせい, 2004.
11. Public Involvement Handbook, State of Florid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03.